

세이비어 교회 소식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정기 제직회
예배 후에 정기 제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3. 7월 12일(목) 성극관람
이번 주 목요일에 성극관람이 있습니다. (신청자 12명)
4. 전교인 수련회 안내
일시: 8월 18(토)~19(주일) 장소: 포코노 수양관 회비: \$40
5. 수련회 준비 모임 안내
준비위원: 최홍만, 배한우, 허도행, 류홍덕, 송섭, 노미숙, 정경학
6. 성찬식 및 세례식 안내
7월 29일(주일)에는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7.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베이사이드 구역입니다.(이관기 최태신 집사)
다음 주 친교는 플러싱 구역입니다.

7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7/08		노미숙	베이사이드	한순자
7/15	송 섭	표하나	플러싱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 중)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주일설교요약

제목 : 누가 나의 이웃인가?

본문 : 누가복음 10장 25~37절

- 기도제목 : 1. 세상의 흐름을 좇아가지 않게 하소서.
2. 나의 이웃의 범위가 점점 넓혀져가게 하소서.
3.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우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 가운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셨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율법사가 예수님께 드린 두 질문

이 비유는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와의 대화 가운데 등장합니다.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수중으로** 그에게 맞게 율법사가 질문하고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이에 율법사는 신명기 5:6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27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행하는 사람이며, 완전한 사람이며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는데,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사에게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 대우를 차별적으로 합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차별입니다. 원수이건 이웃이건 둘 다 동일한 원리, 사랑의 원리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 누가 나의 이웃인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웃의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은 이웃! 그 외의 사람들은 원수라는 대단히 잘못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3. 이웃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만 난 사람을 위해서 했던 여러 **선한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첫째, 가까이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대신 짐을 져 주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은 이웃의 개념이 점점 좁아져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에 기독교가 가장 반대가 크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건 아니더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웃의 개념이 점점 좁아 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케나다 그리고 주변국들과 무역 전쟁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이웃국가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이웃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 한 없이 넓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이웃을 넓혀가는 것!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찾는다면 그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할과 욕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누가 당시의 이웃인가? 이 질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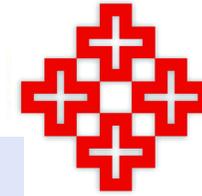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7월 8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일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후서 강해) 기도: 노미숙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43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2번(시편 96편)	
찬 송 Hymn	418장	
기 도 Prayer	송명건 집사	
성 경 Scripture	누가복음 10장 25~37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누가 나의 이웃인가?	토요일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373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